

- 주요 뉴스: 미국 경제, 경기회복 기대와 연준의 긴축강화 우려가 상충
 - 미국 뉴욕 연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정점에 근접했을 가능성
 - 중국 2021년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6개월래 최고치. 공급망 개선으로 생산 증가
 - OPEC+, 2월에 현행과 동일한 40만배럴 규모로 공급을 확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등이 영향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부진으로 하락, 다우지수는 2일 연속 신고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따른 은행 및 여행주 강세로 사상 최고치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관측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에 비해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반영

※ 원/달러 1M NDF환율(1198.4원, +3.4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1/4일	1/3일	전일대비			1/4일	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793.5	4,796.6	-0.06%	국채 금리 10y	미국	1.65%	1.63%	2bp
	유럽	494.02	489.99	0.82%		독일	-0.12%	-0.12%	-0bp
	중국	3,632.3	휴장	-0.20%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9,302	휴장	1.77%		중국	39bp	40bp	-1bp
	한국	2,989.2	2,988.8	0.02%	위험 지표	EMBI+	-	378	-
환율	달러지수	96.28	96.21	0.07%		VIX	16.91	16.60	1.87%
	유로화	1.1287	1.1297	-0.09%		WTI유	76.99	76.08	1.20%
	엔화	116.16	115.32	-0.72%	원자재	구리	447.0	442.2	1.10%
	위안화	6.3726	휴장	-0.26%		금	1,814.6	1,801.5	0.73%
	원화	1,194.1	1,191.8	-0.1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경제, 경기회복 기대와 연준의 긴축강화 우려가 상충

- 주요 2021년 12월 제조업 지표들은 전월비 다소 둔화되었지만 공급 차질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발신. 이에 향후 경기회복 기대가 증가. 이를 반영하여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했고, 5년물 국채금리는 2020년 2월말 이후 최고치
- 또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양호한 노동수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11월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건수가 450만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향후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
-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가 고조되면 연준의 긴축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 금년 자산매입 종료와 함께 2~3회의 금리인상이 확실히 되며, 특히 일부에서는 연준의 보유자산(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경고
- 연준의 월러 이사는 보다 신속한 보유자산 축소를 주장했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볼라드 총재도 자산매입 종료 후에는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 다만 뉴욕 연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2024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정점에 근접했을 가능성

-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GSCPI)는 팬데믹 초기에 큰 폭 상승했으나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 특히 운송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시현

■ 미국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년 2회의 금리인상을 지지

- 카쉬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저물가 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고물가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진단

■ 미국 2021년 12월 ISM 제조업경기지수, 전월비 둔화. 공급 차질 개선

- ISM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58.7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 그러나 공급 차질 완화 신호가 발신. FHN Financial의 Will Compernelle는 완전한 공급망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용 개선과 투입 비용 하락은 긍정적 징후라고 평가

■ 프랑스 재무장관, 2021년 성장률은 기존 추정치(6.25%)를 크게 상회할 전망

- 르메르 장관은 오미크론 등으로 일부 타격을 받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마비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설명. 금년 성장률은 4%로 예상. 한편 2021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정부 예상치(8.2%)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

■ 중국 2021년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6개월래 최고치. 공급망 개선으로 생산 증가

- 해당 지수는 50.9로 전월(49.9) 및 예상치(50.0) 모두 상회. 이번 결과는 생산증가와 물가압력 완화 등이 주요 원인. 다만 고용 등은 부진. 차이신의 Wang Zhe는 공급 차질 완화 등으로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평가

■ 일본은행 총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

- 구로다 총재는 특히 오미크론 감염의 확산과 미국 및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등이 불확실성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 다만 향후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

■ JP모건, 글로벌 주가 상승의 종료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은 상황

- 미스라브 마테카 스트래티지스트는 긍정적 요인들이 많이 있다면서 강세장 시각 유지를 권고. 또한 주요국의 금리인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국 경기둔화 등의 위험요인은 현실화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

■ OPEC+, 2월에 현행과 동일한 40만배럴 규모로 공급을 확대

- 회의 참가국들은 향후 글로벌 원유수요가 개선될 수 있음을 반영. 최근 아시아 지역의 소비증가와 재고감소 등으로 미국 내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추이. OPEC+는 유가의 과도한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모두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021년 11월 JOLTS 구인건수(만건): 1056, 10월(1109),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FOMC 의사록, 2021년 12월 ADP 민간고용
- 미국 및 유로존 2021년 12월 마켓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충격 최소화를 동반한 고물가 문제 해결이 관건 - Financial Times

(The key to 2022 will be how inflation is brought down)

- 2021년 미국 주가는 고물가 현상은 일시적이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연준의 신호에 상승세를 지속.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된 가운데 연준 또한 금년 2~3회의 금리인상을 예고
- 10년 이상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익숙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금융시장 불안정과 민간수요 감소를 초래할 우려. 고물가 해결을 위한 정책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과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 중국의 부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위험요인 해결은 어려운 과제 - WSJ

(Evergrande Gets a New Reason to Worry)

-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하지만 헝다그룹과 같이 부실이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 특히 당국은 헝다그룹에 하이난 섬에서 건설 중인 부동산을 철거하도록 지시
- 또한 중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국면이 지속.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2021년 12월 24개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계약판매가 전년동기비 31% 감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부실 대형 부동산 업체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편

■ 미국 금융시장 낙관론, 통화긴축·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극복이 중요 - 블룸버그

(All This Market Optimism Faces a Big Dose of Negativity)

■ 2022년 영국 경제, 브렉시트·정치적 갈등 등으로 성장 둔화 전망 - Financial Times

(Political uncertainty and Brexit will slow UK recovery in 2022, economists predict)

■ 중국의 중앙통제식 발전 모델, 시민사회 억압과 정치적 분열 등 한계점 노출 - 블룸버그

(China's Economic Development Model Shows Some Crack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